

『素問·欬論』의 ‘聚於胃，關於肺’ 條文에 대한 考察

¹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 ²嘉泉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白裕相¹ · 金鍾鉉² *

A Study on the Theory of Stomach and Lung in *Suwen·Kailun*

Baik Yousang¹ · Kim Jong-hyun² *

¹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²Dept. of Medical Classics &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tinguish the debates surrounding the sentences found in *Suwen Kailun* that deal with flocking to stomach and closure in lung. The paper seeks to do this through studying the assertions of historical doctors and their theories regarding the topic.

Methods : The interpretations of annotators regarding these sentences were studied, and text DB was searched to collect and analyze materials related to the theori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omach and lung.

Results : The sentences of flocking to stomach and closure in lung, judging from their contexts, seem to be related to the symptom of Sanjiao ke or Liufu ke. However, they may be pointing to internal organs' ke as a whole based on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stomach and lung. They could mean either the abnormality of mechanism of stomach and lung could cause ke or that Zhuoqi could accumulate inside of stomach to cause phlegm-fluids thereby blocking thorax and causing cough. Theory of Warm disease, too, provides a number of treatment suggestions for stomach, lung damages such as supporting Yin and dispersing dampness.

Conclusions : The study of the sentences regarding flocking to stomach and closure in lung is expected to not only provide an analysis of the sentences, but also provide a perspective and a method for clinical treatments.

Key Words : *Suwen, Kailun*, cough, flocking to stomach, closure in lung

* Corresponding Author : Kim Jong-hyun. Dept. of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Tel : 031-750-8724

I. 序 論

『素問·效論』에 나오는 ‘聚於胃, 關於肺’의 조문에 대하여 역대 醫家들의 논쟁이 있었는데, 해당 條文이 문맥상 三焦咳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전체 五臟六腑의咳에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것과 ‘聚於胃, 關於肺’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것 등이다. 문자적으로 聚於胃는 胃에 모인다는 것이며 關於肺는 肺에서 단한다는 것으로 그 주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해석이 분분하였다.

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수의 논문들은 ‘聚於胃, 關於肺’의 의미를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데에 부족한 부분이 많으며¹⁾ 만성 咳嗽나 소아 咳嗽의 치법 제시²⁾ 등 임상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또한 광범위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³⁾도 있으나 조문의 앞뒤 문맥이나 胃와 肺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분석하여 관련 논쟁을 해소하기보다는 자료의 제시에 그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당 조문에 대한 여러 注釋家 또는 醫家들의 주장을 살펴보고, 胃와 肺의 관계에 대한 『黃帝內經』과 후대의 이론들을 같이 검토하여 위의 논쟁에 대한 해답을 얻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聚於胃, 關於肺’ 條文에 대한 여러 注家の 견해를 검토한 후 四庫全書⁴⁾ 및 中醫世家DB⁵⁾ 등 문헌 DB의 검색을 통하여 胃와 肺의 관계에 대한 논설을 수집 분석하고 이를 고찰하여 ‘聚於胃, 關於肺’의 범위와 의미 등에 대하여 살

펴보았다.

『素問·效論』의 ‘聚於胃, 關於肺’ 조문의 의미에 대한 분석은 단지 『黃帝內經』 조문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임상치료에 관점과 방법을 제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本 論

1. ‘聚於胃, 關於肺’ 條文에 대한 여러 注家の 견해

『素問·效論』의 서두에서는 肺뿐만이 아니라 五臟六腑가 모두 咳를 발할 수 있다고 하였고⁶⁾, 뒤에서 五臟六腑咳의 양상을 나열한 뒤 咳가 오래되어 三焦로 전해진 것을 설명하면서 ‘聚於胃, 關於肺’를 언급하였다.

久效不已, 則三焦受之, 三焦效狀, 效而腹滿, 不欲食飲. 此皆聚於胃, 關於肺, 使人多涕唾, 而面浮腫氣逆也.(素問·效論)⁷⁾

오래도록 咳가 낫지 않으면 三焦가 병을 받으니 三焦의 咳의 양상은 기침을 하면서 배가 더부룩하고 먹고 마시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모두 胃에 모이고 肺에서 단힌 것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콧물과 침을 많이 흘리면서 얼굴이 붓고 氣가 거스르게 만든다.

여기서 관건은 ‘聚於胃, 關於肺’의 구절이 같은 편의 앞에서 언급한 五臟咳, 六腑咳 또는 三焦咳 등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胃와 肺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 관계에 따라 해당 증상들이 발현되는지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 있다.

黃帝內經素問次注(王冰, 762년)

三焦者, 非謂手少陽也, 正謂上焦中焦耳. 何者. 上焦者, 出於胃上口, 并咽以上, 貫鬲, 布胸中, 走腋. 中焦者, 亦至於胃口, 出上焦之後, 此所受氣者, 泌糟粕, 蒸津液, 化其精微, 上注於肺脈, 乃化而爲血, 故言皆

Email : ultracoke82@gmail.com

Received(21 July 2017), Revised(10 August 2017),

Accepted(17 August 2017)

1) 陳旭青, 嚴道南. 內經此皆聚於胃關於肺探討. 四川中醫. 2015. 33(11). pp.1-3.

徐豔玲. 中醫經典脾胃相關證治探析. 遼寧中醫雜誌. 2008. 35(9). pp.1338-1340.

蔡鴻彥. 咳嗽聚於胃關於肺探微. 吉林中醫藥. 2010. 30(10). pp.829-830.

2) 呂明聖 외. 從脾胃相關理論論治慢性咳嗽. 四川中醫. 2016. 34(11). pp.28-29.

焦玉娟. 從聚於胃關於肺論治小兒咳嗽心得. 山東中醫雜誌. 2012. 31(2). pp.107-108.

3) 譚方. 聚於胃關於肺理論研究. 北京中醫藥大學大學院. 2011.

4)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香港.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1997.

5) 中醫世家. 2004 [cited 2017 20 Apr]; Available from: URL: http://www.zysj.com.cn

6) 黃帝問曰肺之令人欬, 何也. 岐伯對曰五藏六府皆令人欬, 非獨肺也.(素問·效論)

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42.

聚於胃，關於肺也。兩焦受病，則邪氣需肺而肺氣滿，故使人多涕唾而面浮腫氣逆也。腹滿不欲食者，胃寒故也。胃脈者，從缺盆下乳內康，下循腹至氣街，其支者，復從胃下口循腹裏至氣街中而合。今胃受邪，故病如是也。何以明其不謂下焦。然下焦者，別於回腸，注於膀胱，故水穀者常并居於胃中，盛糟粕而俱下於大腸，泌別汁，循下焦而滲入膀胱。尋此行化，乃與胃口懸遠，故不謂此也。⁸⁾

우선 王冰은 『靈樞·營衛生會』에 나오는 上焦와 中焦의 유주 경로와 기능의 설명에 근거하여 두 개가 모두 胃口 부근에서 나오고 中焦가 水穀의 精微를 肺脈으로 전하는 과정이 바로 ‘聚於胃，關於肺’를 말한다고 하였다. 또한 腹部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胃脈이 氣街에 이르기 때문이며, 下焦가 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胃口와 거리가 멀고 주로 糟粕을 아래로 내려보내 別汁을 짜내서[泌] 膀胱으로 滲入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黃帝內經太素(楊上善, 7C말)

[楊上善注] 此六府效。皆以氣聚胃中，上關於肺，致使面壅浮腫氣逆，爲效也。(黃帝內經太素·氣論·效論)⁹⁾

『黃帝內經太素』의 원문에는 ‘聚於胃’가 ‘聚於胃管’으로 되어 있으며, 楊上善은 注에서 마지막 구절이 三焦咳가 아니라 六腑咳 전체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 胃가 六腑를 총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본 것이다. 또한 氣가 胃에 모였다가 올라가 肺에서 단히기 때문에 이후의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이는 ‘聚於胃，關於肺’를 병리적 상황으로 본 측면이 강하다.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馬蒔, 1586년)

此言六府效狀，由五藏所移而久效，則三焦受之。然

合五藏六府之效而未有不聚於胃關於肺者也。效必以肺受邪，而後傳之於五藏，故五藏效甚，而後各傳於六府。¹⁰⁾

夫五藏六府之效如此，然皆聚之於胃，以胃爲五藏六府之主也，關之於肺，以肺先受邪而後傳之於別藏別府也。使人多涕唾而面浮腫，皆以氣逆於上故耳，此乃藏府效疾之總證也。¹¹⁾

馬蒔는 六腑咳가 오래되어 三焦로 전해지지만 五藏六腑의咳가 모두 ‘聚於胃，關於肺’를 한다고 보았다. 그 이유로 胃가 五藏六腑의 主가 되며, 咳病에서 肺가 먼저 邪氣를 받아서 다른 臟腑로 전하기 때문이라고 간단히 언급하였다. 또한 이때의 三焦는 經脈의 三焦經이 아니라 上中下로 나뉜 개념의 三焦라고 하였다.¹²⁾

黃帝內經素問吳注(吳昆, 1594년)

三焦皆元氣之所充周，久效不已，則傷元氣，故三焦受邪而令效，且腹滿不欲食飲。所以然者，三焦火衰不足以生胃土也。胃土既虛，則三焦虛邪皆聚於胃，所謂萬物歸乎土也。肺爲藏府之華蓋，諸藏府有病，無不薰蒸之，所謂肺朝百脈也，故曰關於肺，言關繫於肺也。胃虛則土不能制五液，故令多涕唾，肺衰則金不能施降下，故令浮腫氣逆也。¹³⁾

吳崑은 『黃帝內經素問吳注』에서 이 구절이 三焦咳를 설명한 것이며, 오랜 기침병으로 元氣가 손상되어 原氣의 別使인 三焦가 병을 받아 나타나는 病證으로 보았다. 또한 萬物이 中央의 土로 되돌아오듯이 三焦의 虛邪가 胃에 모이는 것이 바로 ‘聚於胃’이며, 폐가 여러 臟腑들의 덮개로서 臟腑가 병들 때 薰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른바 肺朝百脈이고 ‘關於肺’라고 하였다. 즉, “聚於胃，關於肺”를 楊上善과

10)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256.

11)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257.

12)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257 : 此三焦者，非手少陽三焦之三焦，乃上中下三焦也，見於『靈樞』『營衛生會』篇.

13) 吳昆.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171.

8) 王冰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p.240-241.

9) 錢超塵, 李雲.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658-2.

마찬가지고 병리적 상황으로 보고 있다.

類經(張介賓, 1624년)

此下總結諸咳之證而並及其治也。諸咳皆聚於胃，關於肺者，以胃爲五臟六腑之本，肺爲皮毛之合，如上文所云皮毛先受邪氣及寒飲食入胃者，皆肺胃之候也，陽明之脈起於鼻，會於面，出於口，故使人多涕唾而面浮腫。肺爲臟腑之蓋而主氣，故令人咳而氣逆。¹⁴⁾

張介賓은 『類經』에서 이 구절이 三焦나 六腑뿐만 아니라 앞부분에서 설명한 모든 咳證을 總結하는 것이라 하였는데, 본 편의 서두에서 일반적으로 肺가 皮毛를 통하여 邪氣를 받고 차가운 음식이 胃로 들어와 內外를 겸하여 邪氣를 받아서 대표적인 肺咳가 나타난다고 하였으므로¹⁵⁾ 肺와 胃를 잘 살펴야 하며, 이후의 증상들도 肺와 胃의 이상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類經』의 다른 注에서도 肺脈이 中焦에서 일어나 胃上口를 따라가므로 차가운 음식으로 인한 寒氣가 肺로 올라가며¹⁶⁾, 반대로 上焦의 이상으로 인하여 水氣가 위로 넘치게 된다고 病機를 설명하였다¹⁷⁾.

黃帝內經素問集注(張志聰, 1670년)

此言膀胱三焦之咳，皆邪聚於胃，而上關於肺故也。夫三焦爲決瀆之府，膀胱者，津液之所藏，關門不利，則聚水而從其類矣。水聚於胃，則上關於肺而爲咳，咳則肺舉，肺舉則液上溢。故使人涕唾，水氣上承，故面浮腫而氣逆也。¹⁸⁾

張志聰은 膀胱咳와 三焦咳의 경우에만 모두 邪氣

가 胃에 모이고 위로 肺를 닫히게 하여[關] 咳를 일으킨다고 하였다. 膀胱과 연결시킨 이유는 膀胱의 水氣가 胃에 모인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素問經注節解(姚止庵, 1677년)

按，此總論久咳之爲害也，咳久則病不止於一臟一腑而無所不病矣，故久咳不已，則三焦受之。三焦者，複轉上下，囊括一身。以氣爲用者也。所以咳在三焦，則氣壅閉而不行，故令腹滿而不思飲食，肺屬上焦，胃屬中焦，聚者壅也，關者閉也。言氣壅閉於肺胃也。然氣之所以壅閉於中上二焦者，正以咳久氣衰而不能下注于下焦，下不得洩，故壅閉於肺胃，而使涕唾面浮氣逆於上，此又岐伯申解腹滿之意也。注乃謂病止于上中二焦，陋矣。¹⁹⁾

姚止庵은 咳가 오래되면 어떤 臟腑할 것 없이 모두가 병이 들기 때문에 삼초가 병을 받는다고 보았다. 즉, 三焦가 氣를 用으로 하여 上下 一身을 뒤덮고 감싸고 있기 때문에 氣가 壅閉하여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때 壅閉의 壅이 聚於胃의 聚이며 閉가 關於肺의 關이고, 下焦로 氣가 洩하지 못하여 中上焦에 氣가 壅閉된다고 하였다.

素問直解(高世栻, 1695년)

咳論第三十八篇

咳，肺病也。形寒飲冷則爲肺咳，而五臟六腑皆能爲咳。五臟則關於肺，六腑則聚於胃，而治各有法。²⁰⁾

(此皆聚於胃，關於肺，使人多涕唾，而面浮腫氣逆也。) 此結上文之意，六腑以胃爲本，五臟以肺爲先，故承上文五臟六腑之咳，而言此皆聚於胃關於肺。聚於胃則使人多涕唾而面浮腫，關於肺則氣逆也。(帝曰治之奈何。) 聚胃關肺，治之奈何。(岐伯曰治臟者，治其俞，治腑者，治其合，浮腫者，治其經。帝曰善。) 關肺而治臟者，治其俞，五臟之俞，皆在於背，如肺俞，心俞，肝俞，脾俞，腎俞，是也。聚胃而治腑者，治其合... 若臟腑兼病，治浮腫者，治其經。經者，臟腑相通之經脈也。舉浮

19) 姚止庵. 素問經注節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190.

20) 高士宗.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1. p.257.

14) 張介賓. 懸吐註釋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618.
1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42 : 皮毛者，肺之合也，皮毛先受邪氣，邪氣以從其合也。其寒飲食入胃，從肺脈上至於肺，則肺寒，肺寒則內外合，邪因而客之，則爲肺咳。
16) 張介賓. 懸吐註釋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616 : 肺脈起於中焦，循胃口上膈屬肺，故胃中飲食之寒，從肺脈上於肺也。(類經·疾病類)
17) 張介賓. 懸吐註釋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62 : 上焦不治則水泛高原，中焦不治則水留中脘。(類經·疾病類)
18) 張志聰. 黃帝內經(素問)集注.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2002. p.280.

腫則涕唾氣逆，皆在其中，得其治俞治合治經之意，而推展之，治咳不難矣，帝故善之.²¹⁾

기본적으로 咳病에서 五臟은 關於肺하고 六腑는 聚於胃하는 것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각각의 증상과 치료에 있어서 聚於胃하면 涕唾, 面浮腫이 나타나니 五輸穴 중에서 合穴을 치료하고, 關於肺하면 氣逆이 나타나니 五臟의 背俞穴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素問懸解(黃元御, 1756년)

久咳不已，上中下三焦俱病，則傳之三焦，三焦火陷，不能生土，故咳而腹滿，不欲飲食。三焦咳者，相火之刑辛金也。

聚於胃者，胃土上逆，濁氣填塞，聚於胃口也。關於肺者，胃逆則肺阻也。肺逆則多涕，胃逆則多唾，濁氣鬱塞，是以淫泆而化涕唾。肺胃鬱升，則面浮腫。總因濁氣之上逆也.²²⁾

久咳가 낫지 않으면 上中下 三焦가 모두 병을 받아서 三焦의 火가 성해지니, 土를 生하지 못하여 腹滿, 不欲飲食 등이 나타나고 金을 克하여 기침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聚於胃，關於肺’는 전체적으로 胃가 上逆하여 肺에 영향을 준 것인데 濁氣가 胃口에 모였다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注釋들을 종합해보면, 우선 ‘聚於胃，關於肺’가 三焦咳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전체 五臟六腑의 咳에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馬蒔, 張介賓, 姚止庵, 高世栻 등은 해당 구절이 五臟六腑의 咳를 총괄한 것으로 보았으며 특히 高世栻은 五臟咳는 關於肺로, 六腑咳는 聚於胃로 인하여 나타난다고 구분하였다. 이에 비하여 楊上善은 해당 구절이 六腑咳를 말한 것이며, 吳昆, 黃元御 등은 三焦咳를 설명한 것이라고 하였다. 王冰도 上焦, 中焦의 유주를 통하여 ‘聚於胃，關於肺’를 설명하였고 張志

聰은 三焦뿐만 아니라 膀胱이 관여하여 水氣가 胃에 모인다고 하였다.

‘聚於胃，關於肺’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王冰은 中焦에서 水穀의 精微를 肺脈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하여 일반적인 胃와 肺의 관계로 설명하였는데²³⁾, 대부분의 注家들은 주로 咳病의 病機로 인식하였다. 張介賓은, 「欬論」의 서두에서 肺의 合인 皮毛를 통하여 밖으로부터 邪氣가 들어오고 차가운 것이 胃로 들어와 그 기운이 肺로 올라가 內外가 함께 원인이 되어 咳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므로²⁴⁾ 이것이 곧 ‘聚於胃，關於肺’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馬蒔도 이와 비슷하게 胃가 五臟六腑의 主가 되며 邪氣가 肺로 먼저 들어와 咳가 되는 것으로써 설명하였다. 楊上善은 氣가 胃에 모여서 관련 증상을 일으킨다고 하였고, 姚止庵은 ‘聚於胃’를 三焦의 氣가 멎치는 것[壅]으로 보았으며 吳昆도 三焦의 虛邪가 胃에 모이는 것이라 하였다. 이와 달리 張志聰은 膀胱의 關門이 不利하여 水氣가 같은 類를 쫓아서 胃로 모이는 것을 ‘聚於胃’로 보았고 黃元御도 胃土가 上逆하여 濁氣가 胃口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하였다. ‘關於肺’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肺를 단히게 하여 咳 또는 氣逆을 일으킨다고 보았으며 吳昆은 五臟六腑의 鬲개인 肺가 薰蒸되어 肺朝百脈의 역할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았다.

2. 胃와 肺의 생리적 관계

‘聚於胃，關於肺’의 조문에서 두 句가 서로 별개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도 있으나, 胃와 肺의 생리적, 병리적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聚와 關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실마리가 될 수 있다.

1) 氣의 生成과 宣布

23) 王冰은 胃脈이 氣街에 이르기 때문에 腹部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았는데 특히 氣街를 언급한 것은 氣의 生成과 宣布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4) 王冰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p.238-239 : 皮毛者, 肺之合也, 皮毛先受邪氣, 邪氣以從其合也. 其寒飲食入胃, 從肺脈上至於肺, 則肺寒, 肺寒則外內合, 邪因而客之, 則爲肺欬.

21) 高士宗.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1. p.260.

22) 黃元御. 素問懸解.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81.

우리 몸에서 쓰이는 氣의 원천은 天氣를 제외하고 모두 水穀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胃에서 水穀을 받아들여 氣를 肺로 보내고 肺가 다시 온몸으로 氣를 선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素問·經脈別論』에 잘 묘사되어 있다.

食氣入胃, 散精於肝, 淫氣於筋. 食氣入胃, 濁氣歸心, 淫精於脈. 脈氣流經, 經氣歸於肺, 肺朝百脈, 輸精於皮毛. 毛脈合精, 行氣於府. 府精神明, 留於四藏, 氣歸於權衡. 權衡以平, 氣口成寸, 以決死生.(素問·經脈別論)²⁵⁾

이때의 氣는 氣血, 津液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肺朝百脈에 의하여 脈으로 퍼져나가며 궁극적으로 神明이 四藏에 머물게 하는 바탕이 되고 그 징후는 寸口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 이때 실제 脈中을 순행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營氣이므로 『靈樞·營氣』에서 “營氣之道, 內穀爲寶, 穀入於胃, 乃傳之肺.”라 하고 經脈의 순행이 手太陰에서 시작하는 것을 설명하였다²⁶⁾. 『靈樞·營衛生會』에서 上焦가 胃上口에서 나와서 그 氣가 營氣와 함께 하루에 陰陽 각각 25도를 돌아一周한다고 한 것²⁷⁾도 이러한 순행이 胃와 肺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한편 『血證論』에서는 胃氣가 和하면 津液이 충족해져서 위로 肺를 滋養하게 된다고 하였는데²⁸⁾ 水穀之氣가 津液으로 化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2) 胃氣와 手太陰氣口の 관계

胃가 氣를 肺로 傳하기 때문에 肺手太陰脈부터 經脈의 순환이 시작되고 이를 통하여 五臟六腑가 모두 氣를 받게 된다²⁹⁾. 『素問·五臟別論』에서는 氣口에서 五臟六腑의 변화를 살필 수 있는 이유가 胃가 五臟의 氣를 기르고 氣口도 또한 太陰에 속하여 氣의 宣布에 관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胃者水穀之海, 六府之大源也. 五味入口, 藏於胃以養五藏氣, 氣口亦太陰也. 是以五藏六府之氣味, 皆出於胃, 變見於氣口.(素問·五臟別論)³⁰⁾

이때의 太陰은 開闔樞 가운데 開로서 외부와 소통하며 氣를 퍼뜨리거나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張介賓은 『類經·經絡類』에서 “太陽爲開, 謂陽氣發於外, 爲三陽之表也... 太陰爲開, 居陰分之表也... 開者主出, 闔者主入, 樞者主出入之間.”이라고 하여³¹⁾, 開가 외부와 연결되는 表에 있고 出을 주관한다고 하였다. 실제 臟腑 가운데 手太陰인 肺가 주로 天氣와 통하면서 上焦의 心과 함께 氣를 온몸으로 퍼뜨리는 역할을 하며, 이에 비하여 足太陰인 脾는 胃를 위하여 역시 津液을 사방으로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³²⁾. 위 문장은 太陰 가운데 足太陰脾가 아닌 手太陰肺의 氣口에서 胃로부터 나온 氣의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五臟六腑의 징후가 氣口에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胃氣가 그 氣를 手太陰의 氣口에 도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胃氣의 역할에 대하여 『素問·玉機眞藏論』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2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86.

2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13 : 黃帝曰營氣之道, 內穀爲寶, 穀入於胃, 乃傳之肺, 流溢於中, 布散於外, 精傳者, 行於經隧, 常營無已, 終而復始, 是謂天地之紀. 故氣從太陰出注手陽明.

2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19.

28) 唐容川. 血證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2 : 仲景自注云, 上焦得通, 津液得下, 胃氣因和, 是通津液, 即是和胃氣, 蓋津液足, 則胃上輸肺, 肺得潤養, 其葉下垂, 津液又隨之而下, 如雨露之降, 五臟戴澤, 莫不順利, 而濁陰全消, 充陽不作, 肺之所以制節五臟者如此.(血證論·陰陽水火氣血論)

29) 章楠. 靈素節注類編. 杭州.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p.63 : 穀入於胃, 乃傳之肺, 流溢於中, 布散於外, 精專者, 行於經隧, 常營無已, 終而復始, 是謂天地之紀. 故氣從手太陰, 出注手陽明, 上行注足陽明, 下行至附上, 注大趾間, 與太陰合.(靈素節注類編·營衛經絡總論)

3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42.

31) 張介賓. 懸吐註釋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p.362-363.

3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12 : 四支皆稟氣於胃, 而不得至經, 必因於脾, 乃得稟也. 今脾病不能爲胃行其津液, 四支不得稟水穀氣, 氣日以衰, 脈道不利, 筋骨肌肉, 皆無氣以生, 故不用焉.(素問·太陰陽明論)

五藏者，皆稟氣於胃，胃者五藏之本也，藏氣者，不能自致於手太陰，必因於胃氣，乃至於手太陰也，故五藏各以其時，自爲而至於手太陰也。故邪氣勝者，精氣衰也，故病甚者，胃氣不能與之俱至於手太陰，故眞藏之氣獨見，獨見者，病勝藏也，故曰死。(素問·玉機眞藏論)³³⁾

즉, 胃氣가 眞藏氣와 함께 手太陰의 氣口에 이르러야 하는데 死證에서는 胃氣가 衰弱하여 함께 行하지 못하고 眞藏氣만 드러나는 眞藏脈이 나타나게 된다. 이때의 胃氣도 근원은 水穀의 精氣이며 手太陰과 관련되어 經脈을 순환하는 氣이다.

3) 清氣와 濁氣의 分別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清陽出上竅，濁陰出下竅，清陽發腠理，濁陰走五藏，清陽實四支，濁陰歸六府.”³⁴⁾라고 한 것과 같이 우리 몸을 이루는 氣는 清濁의 특성으로 나뉘게 되는데, 『靈樞·陰陽清濁』에서는 清氣는 위로 肺로 흘러들고 濁氣는 아래로 胃로 달려간다고 하여 胃와 肺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黃帝曰夫陰清而陽濁，濁者有清，清者有濁，清濁別之奈何。岐伯曰氣之大別，清者上注於肺，濁者下走於胃，胃之清氣，上出于口，肺之濁氣，下注于經，內積於海。(靈樞·陰陽清濁)³⁵⁾

楊上善은 『黃帝內經太素』에서 이때의 清氣와 濁氣는 바로 水穀의 清濁이라고 설명하였다³⁶⁾. 또한 『靈樞·動腧』에서는 呼吸에 따라 脈動이 규칙적으로 뛰는 것에 대하여 五臟六腑의 海인 胃의 清氣가 肺로 흘러들어 脈中을 일정하게 왕래하기 때문이라 하였고³⁷⁾ 楊上善도 이때의 清氣가 手太陰肺脈으로부

터 시작하여 上下로 行한다고 하였다³⁸⁾. 手太陰의 寸口脈뿐만 아니라 人迎脈이 뛰는 것도 胃의 清氣가 肺로 가고 그 悍氣가 流注하여 陽明에 다시 승하고 人迎으로 내려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³⁹⁾. 또한 寒溫不適과 飲食不節로 인하여 濁氣가 中焦에 생기는 것도 원래 水穀의 精氣는 肺로 들어가고 濁氣는 腸胃로 가서 머물기 때문이다⁴⁰⁾.

4) 宗氣와 虛里的 관계

『靈樞·邪客』에서 胃로 들어온 水穀이 糟粕, 津液, 宗氣의 셋으로 갈라진다고 하였고, 이 가운데 宗氣는 胸中에 쌓였다가 喉嚨으로 나오고 心脈을 관통함으로써 呼吸을 계속 일으킨다고 하였다⁴¹⁾. 이는 宗氣의 근원에 胃에서 만들어진 水穀의 精氣에 있으며 胃에 이상이 생길 경우 肺와 관련된 呼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⁴²⁾. 『靈樞·邪氣藏府病形』에서는 宗氣가 코로 나와 냄새를 맡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는데⁴³⁾, 張志聰은 이것이 宗氣가 호흡을 담당하는 肺와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⁴⁴⁾. 또한

p.267 : 黃帝曰經脈十二，而手太陰足少陰陽明，獨動不休，何也。岐伯曰是明胃脈也。胃爲五藏六府之海，其清氣上注於肺，肺氣從太陰而行之，其行也，以息往來，故人一呼，脈再動，一吸，脈亦再動，呼吸不已，故動而不止。

38) 錢超塵, 李雲.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146 : 胃之清氣，上注於肺，從手太陰一經之脈上下而行。

3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267 : 黃帝曰足之陽明，何因而動。岐伯曰胃氣上注於肺，其悍氣上衝頭者，循咽上走空竅，循眼系，入絡腦，出頰，下客主人循牙車，合陽明，并下人迎，此胃氣別走於陽明者也。

4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32 : 濁氣在中者，言水穀皆入於胃，其精氣上注於肺，濁溜於腸胃，言寒溫不適，飲食不節，而病生於腸胃，故名曰濁氣在中也。

4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298 : 五穀入於胃也，其糟粕津液宗氣，分爲三隧，故宗氣積於胸中，出於喉嚨，以貫心脈，而行呼吸焉。

42) 張志聰. 黃帝內經(靈樞)集注.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2002. p.39 : 宗氣者，陽明之所生，上出於喉，以司呼吸，而行於四肢，故闔折則氣無所止息，而痿疾起矣。

4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37 : 其宗氣上出於鼻而爲鼻。

44) 張志聰. 黃帝內經(靈樞)集注.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2002. pp.25-26 : 宗氣者，胃腑所生之大氣，積於胸中，上出於肺以司呼吸，故出於鼻而爲鼻。

3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73.

3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23.

3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94.

36) 錢超塵, 李雲.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240 : 穀之清氣，上注於肺... 穀之濁者，下流於胃。

3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靈樞·刺節眞邪』에서 營衛의 운행을 언급하면서 이어서 宗氣의 流注를 설명하여⁴⁵⁾ 宗氣가 營衛의 운행을 推動하는 역할을 함을 짐작할 수 있다.

『素問·平人氣象論』에서는 胃의 大絡인 虛里가 宗氣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는데 虛里는 지금의 심장 박동처에 분포한 絡脈으로 宗氣의 상태를 나타낸다⁴⁶⁾.

胃之大絡，名曰虛里，貫鬲絡肺，出於左乳下，其動應衣，脈宗氣也。盛喘數絕者，則病在中，結而橫，有積矣，絕不至曰死。乳之下其動應衣，宗氣泄也。(素問·平人氣象論)⁴⁷⁾

虛里가 胃의 大絡임이 의미하는 것은 宗氣가 胃에서 생성된 氣에 근원한다는 것이며, 또한 虛里의 流注가 膈을 관통하고 肺에 絡하여 있어서 肺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靈樞·刺節眞邪』에서 宗氣가 아래로 氣街로 흘러들고 위로는 후두로 달려간다고 하였는데⁴⁸⁾, 氣街는 足陽明胃經의 氣衝穴로 胃에서 생성되는 氣와 下焦에 갈무리된 精氣가 모이는 곳이다.

참고로 후대에 脾胃가 上下의 中樞 역할을 하여 氣機를 조절하면서 呼吸에 관여한다고 보았는데, 예를 들어 『醫門法律』에서 “呼出心肺主之，吸入腎肝主之，呼吸之中，脾胃主之。故惟脾胃所主中焦，爲呼吸之總持。”라 하여 脾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나아가 胃上口인 賁門의 氣를 胃下口인 幽門으로 잘 내려 보내고 다시 二陰의 下竅로 내보내는 것이 바로 넓은 의미의 呼吸이라고 하였다⁴⁹⁾.

5) 肺와 胃의 經絡 流注

『靈樞·經脈』에서 肺手太陰之脈에 대하여 “起於中焦，下絡大腸，還循胃口，上膈，屬肺。”⁵⁰⁾라고 하여 胃口를 따라 돌아서 위로 올라간다고 하였고, 胃足陽明之脈에 대해서는 “其支者，從大迎前下人迎，循喉嚨，入缺盆，下膈，屬胃，絡脾。”라고 하여 직접 肺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喉嚨을 따라서 缺盆으로 들어가 膈으로 내려간다고 하였다. 經脈의 流注는 臟腑 간의 밀접한 관계를 어느 정도 전체로 하는 것이 므로 胃와 肺의 직간접적인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靈樞·營衛生會』에서는 上焦가 胃上口에서 出하여 膈을 뚫고 胸中에 퍼지며 腋으로 가서 手太陰의 부분을 行한다고 하였고⁵¹⁾, 中焦도 역시 上焦의 뒤에서 出하여 水穀으로부터 精微를 化하여 위로 肺脈으로 보낸다고 하였다⁵²⁾. 또한 『素問·平人氣象論』에서 胃의 大絡인 虛里가 膈을 뚫고 肺에 絡한다고 하였다⁵³⁾.

3. 胃와 肺의 병리적 관계

1) 經絡病의 病機

『素問·效論』에서 肺의 皮毛로 먼저 邪氣가 들어오고 이어서 차가운 음식이 胃로 들어와 內外相合하여 肺咳가 된다고 하였는데⁵⁴⁾, 이에 대하여 楊

肺之絡脈逆也。不得臥而息有音者，是陽明之逆也。益見布息之氣，關通肺胃，又指呼出爲息之一端也。呼出心肺主之，吸入腎肝主之，呼吸之中，脾胃主之。故惟脾胃所主中焦，爲呼吸之總持。設氣積賁門不散，而阻其出入，則危急存亡非常之候。善養生者，俾賁門之氣，傳入幽門，幽門之氣，傳二陰之竅而出，乃不爲害。其上焦下焦，各分呼出吸入，未可以息之一字，統言其病矣。(醫門法律·一明辨息之法)

4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316 : 用鍼之類，在於調氣，氣積於胃，以通營衛，各行其道，宗氣留於海，其下者，注於氣街，其上者，走於息道。故厥在於足，宗氣不下，脈中之血，凝而留止，弗之火調，弗能取之。

46) 虛里의 박동이 감지되는 것이 곧 胸部에 쌓인 宗氣가 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4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65.

4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316.

49) 喻嘉言. 喻嘉言醫學三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4. p.333 : 此指呼出爲息之一端也。其謂起居如故而息有音，此

5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79.

5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19 : 上焦出於胃上口，並咽以上，貫膈而布胸中，走腋，循太陰之分而行，還至陽明，上至舌，下足陽明，常與營俱行於陽二十五度，行於陰亦二十五度，一周也。

5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p.119-120 : 黃帝曰願聞中焦之所出。岐伯答曰中焦亦並胃中，出上焦之後，此所受氣者，泌糟粕，蒸津液，化其精微，上注於肺脈，乃化而爲血，以奉生身，莫貴於此。故獨得行於經隧，命曰營氣。

5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65.

上善은 『黃帝內經太素』에서 肺手太陰脈의 流注에 근거하여 차가운 음식이 胃로 들어온 후 寒氣가 胃口로부터 肺脈을 따라 肺로 들어와 肺咳가 된다고 하였다⁵⁵⁾. 몸을 차게 하고 차가운 것을 마시면 肺를 傷한다는 것은 『靈樞·邪氣藏府病形』에서 “形寒寒飲，則傷肺.”라고 하였다⁵⁶⁾ 『難經』에서는 이를 正經의 自病이라 하였다⁵⁷⁾. 단, 『靈樞·經脈』에는 肺手太陰脈과 胃足陽明脈의 是動病, 所生病 가운데에 서로 간의 관련 병증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2) 痰飲의 病機

脾胃의 손상으로 津液이 생성 선포되지 못하고 모이면 痰飲이 발생하고, 다시 肺로 痰飲이 逆上하여 기침을 하게 된다. 『素問·經脈別論』에서 飲이 胃로 들어간 후 脾가 精微로운 것을 肺로 보내고 다시 肺가 通調水道하여 水精을 사방으로 퍼뜨린다고 하였다.

飲入於胃，游溢精氣，上輸於脾。脾氣散精，上歸於肺，通調水道，下輸膀胱。水精四布，五經並行，合於四時五藏陰陽，揆道以爲常也。(素問·經脈別論)⁵⁸⁾

이때 외부 濕邪나 脾肺의 氣機 運行的 이상으로 痰飲이 발생하면 肺로 들어가 咳嗽을 發하게 되니 『素問病機氣宜保命集』에서 “寒暑燥濕風火六氣，皆令

人咳嗽，唯濕病痰飲入胃，留之而不行，上入於肺，則爲咳嗽.”⁵⁹⁾라고 하였다. 『醫宗金鑑·欬嗽總括』에서는 ‘聚於胃，關於肺’가 곧 肺의 清肅이 안되어 脾胃의 濕濁으로 인한 痰飲이 생기는 것이라 하였고, 이로 인하여 氣가 上逆하여 咳嗽가 發한다고 하였다⁶⁰⁾. 陳修園은 『醫學三字經』에서 胃中の 水穀之氣가 肺로 올라가 諸臟을 灌溉하지 못하고 胃에 머물렀다가 熱氣를 따르면 痰이 되고 寒氣를 따르면 飲이 되면 濁氣가 肺로 올라가 咳가 된다고 하였다⁶¹⁾. 『醫編』에서는 胃氣逆上으로 喘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食積과 痰飲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⁶²⁾. 단, 일반적으로 痰飲의 발생은 胃뿐만 아니라 脾의 運化 이상에도 기인한다⁶³⁾.

3) 溫病의 病機

陳平伯의 『外感溫病篇』에서 “風溫外薄，肺胃內應，風溫外襲，肺胃受病，其溫邪之內外有異形，而肺胃之專司無二致.”⁶⁴⁾라 하여 風溫의 邪氣가 안으로 바로

59) 劉完素. 素問病機氣宜保命集.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8. p.147.

60) 吳謙. 醫宗金鑑(78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1. p.190 : 有聲曰欬，有痰嗽，聲痰俱有效嗽名，雖云藏府皆欬嗽，要在聚胃關肺中，胃濁脾濕嗽痰，本肺失清肅，欬因生，風寒火鬱燥痰飲積熱虛寒久勞成。[註] 有聲無聲曰欬，有痰無聲曰嗽，有聲有痰曰欬嗽，內經雖云五藏六府皆令人欬，而大要皆在聚於胃關於肺也。因胃濁則所遊溢之精氣與脾濕所歸肺之津液，皆不能清水精之濁，難於四布，此生痰之本，爲嗽之原也。肺居胸中，主氣清肅，或爲風寒外感或爲痰熱內干清肅，有失降下之令，因氣上逆而咳嗽也，久勞成謂久病欬嗽，不已傷肺成勞也。

61) 陳念祖. 醫學三字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6 : 肺最重，胃非輕。[註] 內經雖分五臟諸咳，而所尤重者，在聚於胃關於肺六字。蓋胃中水穀之氣，不能如霧，上蒸於肺，而轉瀉諸臟，只是留積於胃中，隨熱氣而化爲痰，隨寒氣而化爲飲，胃中既爲痰飲所滯，則輸肺之氣，亦必不清，而爲諸欬之患矣。

62) 何夢瑤. 醫編(續修四庫全書1025).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270 : 胃絡不和，氣逆作喘，然所以致逆者，非火則食與痰耳。

63) 沈金鰲. 雜病源流犀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19 : 有聲無痰曰咳，非無痰，痰不易咯出也，病在肺，肺主聲，故聲先而痰後。有痰無聲曰嗽，非無聲，痰難嗽出，聲不甚響也，病在脾，脾藏痰，故痰出而嗽止。

林佩琴. 類證治裁.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96 : 蓋肺爲貯痰之器，脾爲生痰之源。

64) 王士雄. 評註溫熱經緯. 서울. 集文堂. 2013. p.396.

5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42 : 黃帝問曰肺之令人欬，何也。岐伯對曰五藏六府皆令人欬，非獨肺也。帝曰願聞其狀。岐伯曰皮毛者肺之合也，皮毛先受邪氣，邪氣以從其合也。其寒飲食入胃，從肺脈上至於肺，則肺寒，肺寒則外內合，邪因而客之，則爲肺欬。

55) 錢超塵, 李雲.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656 : 肺合皮毛，故皮毛受於寒邪，內合於肺，又肺脈手太陰起胃中焦，下絡大腸，還循胃口，上膈(屬)肺。寒飲寒食入胃，寒氣循肺脈上入肺中，內外寒邪相合，肺以惡寒，遂發肺欬之病也。

5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36 : 黃帝曰邪之中人藏，奈何。岐伯曰愁憂恐懼則傷心，形寒寒飲則傷肺，以其兩寒相感，中外皆傷，故氣逆而上行。

57) 滑壽. 難經本義. 臺南. 世一書局. 1981. p.97 : 四十九難曰有正經自病，有五邪所傷，何以別之。然，經言憂愁思慮則傷心，形寒寒冷則傷肺，志怒氣逆上而不下則傷肝，飲食勞倦則傷脾，久坐濕地，強力入水則傷腎。是正經之自病也。

5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86.

肺胃에 응하니 肺胃는 溫邪가 반드시 범하는 곳이라 하였고 이때 清泄肺胃의 치법을 써야 한다고 하였다. 『溫熱逢源』에서는 伏暑의 경우 邪氣가 口鼻로 들어와 肺胃를 거쳐 募原에 잠복한다고 하였고⁶⁵⁾, 안으로는 胃腑의 熱이 위로 올라가 肺를 熏蒸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伏邪가 下焦의 少陰에 있다가 三陽에 이르러 胃腑에 熱로 化하여 맺히고, 이 熱이 少陰之系를 따라서 肺로 올라가기도 하고 胃로부터 바로 膈部를 熏蒸하여 肺로 들어가기도 한다고 하였다⁶⁶⁾. 치법으로는 肺熱을 내릴 뿐만 아니라 반드시 清胃를 겸하는 清泄肺胃法을 써야 한다고 하였다⁶⁷⁾. 일반적으로 清代의 溫病學에서 燥熱의 邪氣에 의하여 肺와 胃의 津液이 손상되었을 때 肺胃의 陰을 기르는 치법을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4) 기타 肺胃의 病機

章楠은 『靈素節注類編』에서 肺胃相連의 관계로써 여러 病證의 病機를 설명하였는데, 『素問·痺論』에서 “肺痺者, 煩滿喘而嘔.”⁶⁸⁾이라고 한 것에 대하여 肺와 胃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肺의 증상인 胸滿, 喘 등과 함께 胃氣의 逆上으로 인한 嘔가 같이 나타난다고 하였다⁶⁹⁾. 또한 『素問·厥論』에서 “陽明厥逆, 喘欬身熱, 善驚, 衄, 嘔血.”⁷⁰⁾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喘과 咳가 같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⁷¹⁾, 구체적으로 章楠은 表邪가 閉結하여 陽明에서 邪氣가 유여한 것과 手太陰에서 內氣가 부족한 것이 함께 나타나 결국 胃氣가 逆上하여 喘息이 나타난다고 하였다⁷²⁾. 『素問·氣厥論』에서 “大腸移熱於胃, 善食而瘦入謂之食亦.”⁷³⁾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肺胃相連으로 설명하였다⁷⁴⁾.

『證治準繩·女科·咳嗽』에서는 土가 虛하여 金을 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脾理가 성급게 되어 外邪가 침입한다고 하여⁷⁵⁾ 胃가 肺를 滋養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血證論』에서도 胃의 津液이 올라가 肺를 滋養한다고 하였고⁷⁶⁾ 『醫學心悟』에서는 脾胃를 補하여 肺金을 생하게 하는 치법을 제시하였다⁷⁷⁾.

3. ‘聚於胃, 關於肺’ 條文의 의미

1) ‘聚於胃, 關於肺’의 범위

『素問·效論』의 해당 조문이 五臟六腑의 咳 전체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六腑咳 또는 三焦咳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聚於胃, 關於肺’의 조문 앞에 ‘此皆’라는 자가 있으므로 지칭하는 대상이 하나가 아님을 알 수 있는데, 만약 그 대

p.170.

65) 柳寶詒. 溫熱逢源(續修四庫全書1005).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513 : 暑穢之邪, 從口鼻吸受者, 由肺胃而伏於募原, 至秋令涼氣外束, 則發爲伏暑.

66) 柳寶詒. 溫熱逢源(續修四庫全書1005).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525 : 伏邪在少陰, 其由經氣而外出者, 則達於三陽. 其化熱而內蘊者, 則結於胃腑, 此溫熱病之常也. 少陰之系, 上連於肺. 邪熱由腎系而上逆於肺, 則見肺病. 況溫邪化熱, 火必剋金, 則肺臟本爲溫邪所當犯之也. 其或熱壅於胃, 上熏於肺, 則熱邪由胃而炎及於肺, 更爲病勢所應有.

67) 柳寶詒. 溫熱逢源(續修四庫全書1005).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525 : 此時苟伏邪已一律外透, 則治之者, 只須清泄肺胃. 夫病在肺, 而何以治者必兼及胃. 蓋肺中之熱, 悉由胃腑上熏. 清肺而不先清胃, 則熱之來路不清, 非釜底抽薪之道也.

6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62.

69) 章楠. 靈素節注類編. 杭州.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p.277 : 邪客於臟則病重, 爲難治矣. 肺痺者, 遏其心火而多煩, 肺主氣而居胸, 氣痺, 故胸滿而喘, 肺胃相連, 故胃氣亦逆, 則嘔也.

7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71) 章楠. 靈素節注類編. 杭州.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p.335 : 陽明胃經厥逆, 是主血所生病者, 肺胃相連, 胃氣逆於肺, 故喘而咳.

72) 章楠. 靈素節注類編. 杭州.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p.338 : 身熱如炭, 表邪閉結也. 頸膈如格, 內邪格拒也. 頸旁人迎之脈躁盛, 胃陽逆而喘息, 皆邪邪之有餘也. 兩手太陰寸口之脈, 則微細如發, 此表邪有餘, 內氣不足. 不足之病在太陰, 有餘之邪在陽明, 肺胃相連, 胃氣逆, 故煩在肺而喘息, 名厥病也.

7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40.

74) 章楠. 靈素節注類編. 杭州.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p.345 : 大腸經脈絡肺, 肺胃相連, 故大腸亦能移熱於胃, 胃受邪熱而善食, 熱燥肌肉而反瘦, 以脾胃主肌肉也, 此即中消之病, 古名食亦也.

75) 王肯堂. 證治準繩(769).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1. p.927 : 所患悉因胃氣不足, 蓋胃爲五臟之根本, 人身之根蒂, 胃氣一虛, 五臟失所, 百病生焉, 但患者, 多謂脾理不密所致, 殊不知肺屬辛金, 生於己土, 亦因土虛不能生金, 而脾理不密, 外邪所惑.

76) 唐容川. 血證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2.

77) 程國彭. 醫學心悟. 遼寧.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49 : 肺屬辛金, 生於己土, 久咳不已, 必須補脾胃以生肺金.

상이 증상이라면 바로 앞 구절의 咳, 腹滿, 不欲飲食 등이 될 것이고 병증을 말한다면 五臟六腑咳 또는 六腑咳가 될 것이다. 五臟六腑의 咳를 지칭한다면 본 조문 뒤에 이어지는 “使人多涕唾, 而面浮腫氣逆也.”도 일반적인 咳의 증상을 설명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 多涕唾, 面浮腫, 氣逆 등의 증상이 五臟六腑의 咳에 동반되는 보편적인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뒤의 문맥 상 ‘聚於胃, 關於肺’의 구절은 三焦咳의 증상 또는 六腑咳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楊上善과 같이 六腑咳를 지칭한다고 보는 관점은 ‘聚於胃, 關於肺’의 조문이 “六府之效奈何. 安所受病.”로 시작하는 문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三焦咳를 지칭한다고 하더라도 “久效不已, 則三焦受之.”라고 하여 三焦咳의 시작이 곧 六腑咳에 있으므로 넓게 보면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문맥상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聚於胃, 關於肺’의 조문이 五臟六腑咳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관점은 胃와 肺의 생리, 병리적 관계가 일반적인 咳의 病機를 설명하는데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다. 만약 胃와 肺의 관계가 밀접하게 咳의 病機와 관련되어 있다면 그러한 해석이 가능하다. 참고로 高世栻은 肺와 胃를 五臟과 六腑를 대표한 것으로 보아 聚於胃와 關於肺를 구분하기도 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胃와 肺의 관련성이 희박해진다.

2) ‘聚於胃, 關於肺’의 대상

聚於胃와 關於肺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하여 王冰은 三焦의 流注를 근거로 中焦에서 水穀의 精微를 肺脈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대부분의 注家들이 해당 구절을 병리적으로 해석한 것과 차이가 있다. 胃로 들어온 水穀의 氣가 肺脈으로 흘러들어가서 운행하는 것은 『素問·經脈別論』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그밖에 『靈樞·營氣』에서도 營氣의 운행은 水穀의 기운이 胃로부터 肺로 전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의 이상이 유독 咳病만을 일으키게 된다고 할 수 없다. 『素問·五臟別論』에서 胃가 五臟의 氣를 기르는 과정에서 手太陰의 氣口가 드러난다고 한 것도 진단상의 관계일 뿐 咳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없다.

張介賓은 『素問·效論』의 서두에서 皮毛로부터 外邪가 침입하고 안으로 차가운 음식이 胃로 들어와서 폐가 안팎으로 차가워져서 肺咳가 된다고 한 것에 근거하여 이것이 곧 ‘聚於胃, 關於肺’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는 肺咳가 五臟六腑의 咳를 주도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안팎으로 寒氣가 勝하여 咳를 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咳의 病因에 해당하나 聚와 關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楊上善은 六府의 氣가 胃에 모였다가 위로 올라가 肺를 단히게 하여 面浮腫, 氣逆 등을 일으킨다고 하였고, 三焦의 氣가 胃에서 壅하고 肺에서 閉하여 行하지 못하므로 咳가 된다고 하였다. 모두 胃와 肺의 氣機 이상으로 咳를 일으킨다고 본 것이다. 『內經』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宗氣와 虛里의 관계를 들 수 있는데, 宗氣는 胃로 들어온 水穀에 근원하여 胸中에 쌓이며 呼吸을 일으키며 胃의 大絡인 虛里가 胃氣와 宗氣가 이어지는 곳이다. 호흡이나 박동의 이상이 직접적으로 咳의 발병에 관여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宗氣가 肺氣의 盛衰와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靈樞·陰陽清濁』에서 清氣는 肺로 흘러들고 濁氣는 胃로 달려간다고 하였는데, 만약 이러한 清濁의 分別에 이상이 있을 경우 濁氣가 肺로 올라가게 되어 咳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때의 濁氣는 痰飲의 생성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吳崑은 ‘聚於胃, 關於肺’가 三焦咳의 病機를 설명한 것으로 보고, 三焦의 氣가 胃土를 기르지 못하여 三焦의 虛邪가 胃로 모이는 것이 聚於胃이며 肺朝百脈의 이상으로 肺氣가 속강하지 못하는 것이 關於肺라고 하였다. 이는 三焦의 氣化작용으로 조문을 설명한 것이다.

張志聰은 膀胱의 關門이 不利하여 水氣가 같은 類를 쫓아서 올라가 胃로 모이는 것이 ‘聚於胃’라 하였고, 黃元御는 胃土가 上逆하여 濁氣가 胃口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素問·經脈別論』에서 飲이 胃로 들어가고 脾가 그 精微를 肺로 보내서 肺가 通調水道하여 水精을 퍼뜨린다고 한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후대에 痰飲 학설이 발전하면서 脾胃의 運化 이상으로 痰飲이 발생하고 이것이 逆上하여 咳嗽을 일으킨다고 하였는데, 이때 聚於胃

는濁氣가 胃에 모여 痰飲이 생기는 것이고 關於肺는 담음이 胸部를 막아서 咳嗽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聚於胃, 關於肺’의 조문이 三焦咳 또는 六腑咳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우선 三焦의 氣化 運行에 이상이 생겨서 津液이 제대로 수포되지 못하여 痰飲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素問·欬論』에서 五臟咳가 오래되면 六腑로 병이 옮겨간다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六腑가 먼저 병들고 보다 깊은 곳의 五臟으로 전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咳病은 深部에서 淺部로 나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때 六腑가 모두 병들어 오래 지나면 上中下의 氣화와 津液의 선포를 담당하는 三焦가 병을 받는다 고 본 것이다.

참고로 후대 溫病學에서는 風溫의 邪氣가 안으로 肺胃에 함께 응한다고 보았으며 이때 清泄肺胃의 치법을 써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伏暑의 경우 邪氣가 口鼻로 들어와 肺胃를 거쳐 募原에 잠복한다고 하였고, 안으로는 胃腑의 熱이 위로 올라가 肺를 熏蒸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일반적으로 清代의 溫病學에서 燥熱의 邪氣에 의하여 肺와 胃의 津液이 손상되었을 때 肺胃의 陰을 기르는 치법을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Ⅲ. 結 論

본 연구에서 『素問·欬論』에 나오는 ‘聚於胃, 關於肺’ 조문에 대하여 그 대상의 범위와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聚於胃, 關於肺’의 조문은 앞뒤 문맥상 五臟六腑咳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三焦咳의 증상 또는 六腑咳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단, 胃와 肺의 생리, 병리적 관계가 일반적인 咳의 病機를 설명하는데 핵심이라는 관점 하에서 五臟六腑咳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王冰은 三焦의 流注를 근거로 해당 조문을 中焦에서 水穀의 精微를 肺脈으로 보내는 생리적인 설명이라고 보았으나 대부분의 注家들이 해당 구절을 咳의 발병에 대한 病機 설명으로 해석하였다. 王冰

이 설명한 轉化 과정의 이상이 유독 咳病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조문은 병리적 설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張介賓 등은 ‘聚於胃, 關於肺’의 의미에 대하여 『素問·欬論』의 언급과 같이 皮毛로부터 침입한 寒邪와 胃로 들어온 차가운 음식이 안팎으로 합하여 肺咳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胃와 肺의 밀접한 관계를 중심으로 咳의 病機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4. 楊上善 등은 해당 조문이 胃와 肺의 상호 氣機 이상으로 咳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素問·平人氣象論』에서 宗氣와 胃의 大絡인 虛里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호흡을 담당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吳昆의 주장과 같이 三焦의 氣化 작용 이상으로 邪氣가 胃에 물리면서 肺朝百脈의 기능이 상실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5. 또한 『素問·經脈別論』에서 飲이 胃로 들어가고 脾가 그 精微를 肺로 보내서 肺가 通調水道하여 水精을 퍼뜨린다고 한 것과 『靈樞·陰陽清濁』에서 清氣는 肺로 흘러들고 濁氣는 胃로 달려간다고 한 것 등에 근거하여, 脾胃의 運化 이상으로 痰飲이 발생하고 이것이 逆上하여 咳嗽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때 聚於胃는 濁氣가 胃에 모여 痰飲이 생기는 것이고 關於肺는 담음이 胸部를 막아서 咳嗽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6. 溫病學에서는 風溫의 邪氣가 안으로 肺胃에 함께 침입하거나 伏暑의 邪氣가 口鼻로 들어와 肺胃를 거쳐 募原에 잠복한다고 보았고, 또한 胃腑의 熱이 위로 올라가 肺를 熏蒸하는 과정도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 경우에 燥熱의 邪氣로 인하여 肺와 胃의 津液이 손상되므로 肺胃의 陰을 기르거나 肺胃를 清泄하는 치법들을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References

1. Gao SZ. Huangdineijingsuwenzhijie.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2001.
高士宗.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1.
2. Tang ZH. Xuezhenglun. Beijing. China

-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6.
唐容川. 血證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3. Liu BY. Wenrefengyuan (Xuxiusikuquanshu1005). Shanghai. Shanghaijichubanshe. 2002.
柳寶詒. 溫熱逢源(續修四庫全書1005).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4. Ma S. Huangdineijingsuwenzhuzhengfawei.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98.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5. Shen JA. Zabingyuanliuxizhu.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4.
沈金鰲. 雜病源流犀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6. Wu Q. Yizongjinjian(781). Shanghai. Shanghaijichubanshe. 1991.
吳謙. 醫宗金鑑(78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1.
 7. Wu K. Huangdineijingsuwenwuzhu. Beijing. Xueyuanchubanshe. 2001.
吳昆.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1.
 8. Wang kentang. Zhengzhizhunsheng(769). Shanghai. Shanghaijichubanshe. 1991.
王肯堂. 證治準繩(769).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1.
 9. Wangbingbianzhu. Xinbianhuangdineijingsuwen. Seoul. Daeseongmunhwasa. 1994.
王冰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10. Wang SX. Peongjuonyeonlgyeong-wi. Seoul. Jipmoondang. 2013.
王士雄. 評註溫熱經緯. 서울. 集文堂. 2013.
 11. Yao ZA. Suwenjingzhujie.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63.
姚止庵. 素問經注節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12. You Y. Jinguiyi. Beijing. Zhongyigujichubanshe. 2003.
尤怡. 金匱翼.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3.
 13. Yu JY. Yujiyananyixuesanshu. Beijing. Zhongyigujichubanshe. 2004.
喻嘉言. 喻嘉言醫學三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4.
 14. Liu WS. Suwenbingjiqiyibaomingji. Beijing. Zhongyigujichubanshe. 1998.
劉完素. 素問病機氣宜保命集.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8.
 15. Lin PQ. Leizhengzhicai. Beijing. Zhongyigujichubanshe. 1997.
林佩琴. 類證治裁.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16. Zhang JB. Hyeontojuseokliugyeong. Seoul. Beopinmuhwasa. 2006.
張介賓. 懸吐註釋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06.
 17. Zhang J. Jinguiyaolue.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2000.
張機.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18. Zhang N. Lingsujiezhuleibian. Hangzhou. Zhejiang Science and Technology Publishing House. 1986.
章楠. 靈素節注類編. 杭州.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19. Zhang ZC. Huangdineijing(suwen)jizhu. Hangzhou. Zhejiang Ancient Books Publishing House. 2002.
張志聰. 黃帝內經(素問)集注.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2002.
 20. Qian CC. Huangdineijingtaisuxinjiiaozheng. Beijing. Xueyuanchubanshe. 2006.
錢超塵, 李雲.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

- 苑出版社. 2006.
21. Cheng GP. Yixuexinwu. Yaoning. Yaoning Science Technology Publishing House. 1997.
程國彭. 醫學心悟. 遼寧.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22. Chen NJ. Shijanggegua. Fujian. Fujian Science Technology Publishing House. 1984.
陳念祖. 時方歌括. 福建. 福建科學技術出版社. 1984.
23. Chen NJ. Yixuesanzijing.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6.
陳念祖. 醫學三字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24. He MY. Yibian(Xuxiusikuquanshu1025). Shanghai. Shanghaijiajichubanshe. 2002.
何夢瑤. 醫編(續修四庫全書1025).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25. Hong WS. Jeonggyohwangjenaegyeongsomun. Seoul. Publisher of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26. Hong WS. Jeonggyohwangjenaegyeongyoungchu. Seoul. Publisher of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27. Huashou. Nanjingbenyi. Tainan. Shiyishuju. 1981.
滑壽. 難經本義. 臺南. 世一書局. 1981.
28. Huang YY. Suwenxuenjie.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6.
黃元御. 素問懸解.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29. Tan F. A Study on the Lung and Stomach Theory. Graduate School of Beijing 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 2011.
譚方. 聚於胃關於肺理論研究. 北京中醫藥大學大學院. 2011.
30. Lu MS. A Study on the Treatment of Chronic Cough from the Theory of Stomach and Lung. Journal of Sichuan of TCM. 2016. 34(11).
呂明聖 외. 從肺胃相關理論論治慢性咳嗽. 四川中醫. 2016. 34(11).
31. Chen XQ, Yan DN. 內經此皆聚於胃關於肺探討. Journal of Sichuan of TCM. 2015. 33(11).
陳旭青, 嚴道南. A Study on the Phrase of Cijiejuyuweiguanyufei. 四川中醫. 2015. 33(11).
32. Cai HY. A Study on cough juyuweiguananyufei. Jilin Journal of TCM. 2010. 30(10).
蔡鴻彥. 咳嗽聚於胃關於肺探微. 吉林中醫藥. 2010. 30(10).
33. Jiao YJ. A Study on the Treatment of Children Cough from the Theory of Stomach and Lung. Journal of Shandong Chinses Medicine. 2012. 31(2).
焦玉娟. 從聚於胃關於肺論治小兒咳嗽心得. 山東中醫雜誌. 2012. 31(2).
34. 中醫世家. 2004 [cited 2017 20 Apr.]; Available from: URL: <http://www.zysj.com.cn>
35. The Electronic Version of Siku Quanshu (Wenyuange Edition). Hongkong. Digital Heritage Publishing Limited. 1997.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香港.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1997.